

# 동네의 장례식장

김강석/SBS보도국 사회1부 차장

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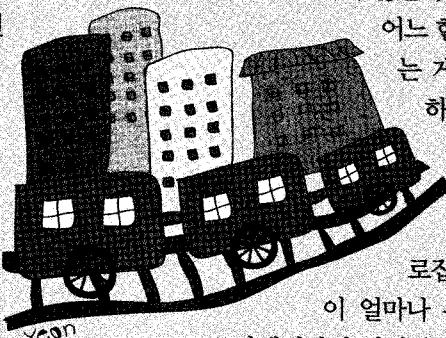
네 진입로에 장례식장 웬 말이냐.” “시  
장은 사과하라.” 몇해 전 경기도 일산 신  
도시 곳곳에 내 걸린 현수막이다. 당시  
고양시측이 일산 신도시 진입로변 공터에 장례식  
장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결사항전  
을 외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.

필자 역시 깨름직했다. 우선 아침 저녁 출퇴근  
때마다 진입로변에 있는 장례식장을 봐야한다는  
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. 게다가 많은 병  
원 영안실의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 
관리상태를 생각한다면 동네에 짓  
는 장례식장은 어떤 수준인지 불  
보듯 뻔하기 때문이다. 아울러 신  
도시 외곽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 
지으면 될 것을 구태어 모두가 쉽  
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를 허용  
한 것은 모종의 혹막이 있는게 아  
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 했다.

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돼 장례식장의  
신설이 백지화되길 내심 바랬고 그럴 것도 없이  
곧 철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. 어느 지  
방자치단체도 님비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  
를 견뎌낸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.

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장  
례식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별정고 퍼런 글씨의 현  
수막은 자취를 감췄다. 그러면 그렇지. 우리 주민  
들이 어떤 사람들인가. 님비를 비판해 온 기자면  
서도 우리 동네의 장례식장은 말이 안돼 라는 내  
마음의 님비가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.

그런데 해외연수로 한동안 국외로 나가 있다  
가 돌아와 보니 일산 진입로 한켠에 장례식장이  
버젓이 들어서 있는게 아닌가. 물론 장례식장 전



면은 커다란 담장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다. 얼  
핏 옆에서 바라본 장례식장은 그렇게 깔끔하지는  
않았고 장례식장이라는 검고 커다란 글씨도 무거  
워보였다.

우여곡절이 있었겠지 하는 생각으로 애써 이를  
외면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. 1년여가 지난 지

금 나의 생각은 회한하게 바뀌었다. 대답은  
간단하다. 아침 저녁 바라보는 장례식장은  
내게 많은 것은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.

어느 한 순간 저곳으로 갈 수 밖에 없  
는 게 우리의 삶이다. 얼마나 간단  
하고 허망한 것인가 살아 있다는  
것이 온 마음을 비집고 들어  
오는 물욕과 죽음 이외엔 대  
책이 없는 갖가지 욕망에 사  
로잡혀 번민하고 고통을 겪는 것  
이 얼마나 부질 없는가를 하루에 두번씩  
장례식장이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럴 때마다  
남은 삶은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  
을 하게 된다. 살아있을 동안은 좀더 뜻있고 보람  
된 일을 해야지 하며 나를 채찍질하기까지 하는 것  
이 또 다른 욕망이 될 정도다.

결론은 잘 들어섰다이다. 차제에 죽음이 항상  
우리 곁에 있듯이 돌아가는 이를 보내는 장례식장  
도 가까이에 둘 필요가 있다. 우리의 장례문화도  
서구처럼 삶의 일부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 
필요한 것이다. 좀더 바랄 게 있다면 식장을 좀더  
아름답고 깔끔하게 짓고 위생관리 등도 철저히 해  
서 기존 병원 영안실의 이미지를 벗었으며 하는  
것이고 이름도 이별의 집이라든가 좀더 친근한 것  
으로 지어서 모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하루속  
히 바꿨으면 하는 것이다. ■PPFK